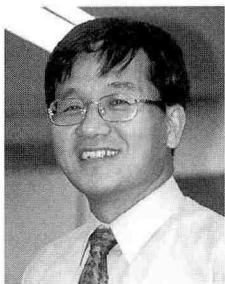


## 제4차 항생제내성 국제워크숍(The 4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ntimicrobial Resistance) 개최

#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접근이 필요



장 금 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지난 10월 22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 4차 항생제내성 국제워크숍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개최됐다. 23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식량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합동 국제식품규

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산하 항생제내성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 및 기구 대표들과 국내의 식품, 축산, 수의 분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상황을 이뤘다.

축산에서의 항균제 사용과 내성발현에 관련한 위해요소관리 정책의 덴마크 사례, 육계 생산시에 성장촉진용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인 영향의 미국 사례 등이 각 국가 수준에서의 활동 사례로 발표됐다.

또한 축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발현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위해요소평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한 활동의 예로서 국제식량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활

동 상황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제동물약품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Animal Health ; IFAH) 회장이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각종 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덴마크의 사례발표에 의하면 육계에서 성장촉진용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료효율이 떨어져 사료비가 증가했으나 폐사율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관련된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치료용 항생제는 그 사용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과연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금지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렸다.

덴마크 당국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위해요소관리 대책을 2005년~2007년에 걸쳐 수립해 실행한 뒤에 수의사들의 협조를 받아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할 계획을 세웠다.

미국에서도 성장촉진용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경우의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가 제시됐다.

생산비가 사료효율 감소로 인한 사료비 증가와 증체율 감소로 비용이 마리당 4.7원(환율 : 1달러 당 920원 기준) 증가했으나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 비용 13~14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리당 9원 정도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질병발생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려면 미국과의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표 1〉 참조).

〈표 1〉 미국 육계산업 경제성 평가 지표 기준  
(환율 : 1달러=920원 기준)

항목	기준
사료비(kg당)	159원
성장촉진용 항생제(사료 kg당)	1.04~2.51원
농가지급 사육수수료(닭 체중 kg당)	73~81원
폐사율(평균)	5.0%
폐기율(평균)	0.75%
사료요구율(평균)	1.95
출하 체중(평균)	2.28kg

※ 환율 : 1달러 = 920원 기준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육계에 사용되는 약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허가되는 것이 그 종류의 수나 다른 이해 관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육계에 사용 허가가 난 항균약제의 수는 항콕시딕제 19종을 포함해 총 36종이다.

국제기구들은 아직 축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인체용 항생제의 내성 발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결론은 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위해요소 평가를 통해 관리 규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이에 국제동물약품연맹 회장은 기존에 발표된 많은 연구 조사 보고 자료를 인용해 항생제 사용 규제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성균 증감과의 관계가 없음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찬성했다. 한편으로는 바이오에너지에 곡물이 사용되면서 사료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논의가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진행되는 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다.

## 맺음말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축산용 항생제에 의한 내성균 증가와 이로 인한 인체용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

특히 축산분야만이 아니라 식품관련 국제기구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치료용 항생제가 아니라 성장촉진용 항생제이다. 닭이 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항생제 사용 규제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거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는 각국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각국에 맞는 실행 가능한 관리 대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계산업 및 닭고기 소비 성향을 감안해 대책을 세워 위해 요소를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그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집단이기주의나 정치적 판단 등으로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투명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종계의 품질 개선, 병아리의 품질 개선, 철저한 위생 관리, 육계 사육시에 철저한 방역 및 사양관리를 통해 항균제가 필요한 상황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약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